

해남군, 주민 주도 ESG 실천 속도 높인다

못난이농산물 천연비누 활용
주민 제안 3가지 공모 선정
12월까지 활동 성과공유회
주민참여형 실천운동 목표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해 치약짜개를 제작하고 제값 못받는 농산물을 활용해 천연비누를 제작하는 등 해남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ESG 제안이 군 자체 공모에 선정 됐다.

군은 주민 주도적인 ESG 실천이 이뤄지도록 예산지원, 성과공유회 등을 마련해 ESG 실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해남형ESG 실천 공모를 실시해 해남공업고등학교와 해남청년연합회, 초효 등 3

개 단체를 선정, 사업시행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ESG 실천 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들에게 ESG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ESG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남형ESG 실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관내 많은 단체들이 신청했으며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구체적인 ESG 실천을 위해 각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해남공업고등학교는 '해공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해남일대 플로깅을 통해 수집한 병뚜껑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고 나눔활동을

통해 ESG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플라스틱 캠페인도 진행해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해남청년연합회는 회원들의 환경보호 활동과 더불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킹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다.

초효에서는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음료와 천연비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정 단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각 사업 단체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윤리경영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의 실천

과제를 통해 범군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부터 해남형 ESG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ESG 친환경 착한여행, 관련 시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ESG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한국ESG학회 주관으로 열린 세계 ESG 포럼에서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시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ESG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경찰,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내 66개 학교 대상

목포경찰(서장 김범상)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4월12일부터 관내 6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특별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특별예방 교육은 신학기 학교폭력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 학교에 진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도박범죄, 마약범죄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범죄발생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예방활동을 펼쳐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피싱 마스터스 대회 준비
감성돔, 낙지 방류 등

강진군이 지난 10일 마량면 해상에서 서순철 강진 부군수, 강진군의원, 수협 조합장, 낚시대회 준비위원 회원, 어업인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개최될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준비해 감성돔 치어 12만마리와 낙지 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낚시객의 메카'로 만들고 무공해 청정해역의 강진만 이미지 제고를 위해 7000만원을 투자해 대량 방류사업을 가졌다.

낚시객이 가장 선호하는 감성돔과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연체류인 낙지 품종을 선택, 방류행사를 진행했다.

강진군이 고품종인 감성돔과 낙지를 방류한 이유는 연안의 정착성 수산품종으로 이동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묘를 방류할 경우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매우 크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급 어종으로 기호도가 높은 수산물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공작으로 불리우는 감성돔은 도미류 중에서 가장 검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흑조어'라 불리며 힘이 좋고 날렵해 낚시객들에게 손맛의 제왕으로 손꼽힌다. 낙지 또한 여름철 더위에 지친 황소에게 낙지를 먹여 별첨 일어나게 하는 등 영양보충에 딱 좋은 스테미너 수산물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감성돔과 낙지 방류는 어족자원 고갈을 염려하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방류로 지역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과 해양환경 보존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운영시설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운영시설과 신안군소방서가 함께 참여한 화재진압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안군복지재단, 공립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1004보급자리(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약 40여명과 신안군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합동훈련은 신안군복지재단 주관으로 운영시설과 소방서 간의 협력과 응급상황 대비 능력 강화를 목표로 소화전 및 방독면 사용요령 숙지, 각 시설의 역할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데 훈련의 주안점을 두었다.

재단은 공립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대부분이 고령의 외상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화재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소화장치를 보강하였고, 각 시설별 환자용, 직원용 구조 방독면을 확보한 바 있다.

이중만 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화재진압 합동훈련은 지역사회 및 운영시설 안전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도 각 시설별 중대재해 예방차원에서 대피탈출 유독가스 강제배출 시설 등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은 "신안군복지재단 운영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항상 대응에 고심하였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소화장비 교육 및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상품권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 자료를 활용해 사전 조사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신안군복지재단이 지난 10일 화재 진압 합동훈련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60억원 지급

1인당 60만원씩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1만99명을 확정해 1인당 60만원씩 총 6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후 3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고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1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령 가능하다.

올해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도시 속 일상탈출 건강걷기 대회

무안군은 남암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2024년 도시 속 일상탈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좋은 도시! 워커퍼시티 무안' 조성에 발맞춰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하고 건강정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동

아리 16개팀과 남암 건강지도자가 참가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성내보건진료소댄스팀식전행사 시작으로 걷기 전 준비운동과 올바른 걷기자세·방법 등을 시범 후 일상에 벗어남 김대중공원을 시작으로 대죽도 주변 걷기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 한마음 치매극복걷기 행사도 같이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13개의 건강홍보관 및 체험관 부스를 열고 △건강검진 안내 △심폐소생술 체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자살예방사업 홍보 △금연·절주 홍보 △치매예방 홍보 등 건강관련 사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건강걷기와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걷기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